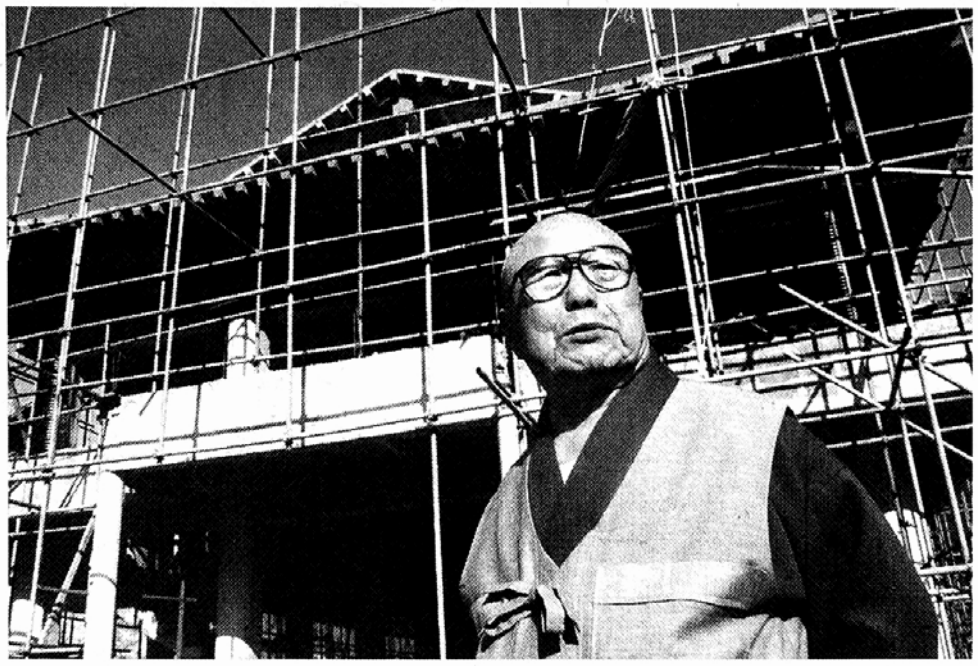


◇아미타도량인 오봉사에 납골당을 건립해 영가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말하는 효란스님. 건평 180평 규모의 납골당 외부골조 공사는 모두 끝났다. 빠르면 올 가을부터 유골을 모실 계획이다.

화장과 납골은 전통 불교문화

사는것도 죽는것도 부처님 뜻

적이 한번도 없어요.

―스님께서는 아미타 염불신앙을 강조하시는데, 납골당 건립도 스님의 신앙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중생이나 죽은 중생 모두를 구제하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불아,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명이 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아미타도량인 여기 오봉사에 납골당을 세우는 것은 경전의 가르침대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이지요. 염불소리를 듣는 영가들에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불하라는 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염불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나는 본원염불이라고 합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해서 중생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 '나무아미타불' 하고 내 명호를 부르라고 했어요.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부처님의 칭하는 것은 찬불, 천수경을 독경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원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해독제가 생기는 것이예요. 업이라는 독을 해소하려면 공덕이라는 해독제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도 공덕을 쌓아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살아온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지금까지 내가 한 행위가 내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나서 보니 부처님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13세에 출가한 것도 그렇고, 독방에 들어앉혀 300여권의 불교책을 읽게 한 것도 부처님 뜻이었지요. 나를 중으로 만들었고, 공부시키려니 마땅한 곳 없으니 형무소로 보낸 것이죠. 일거수 일투족이 부처님 뜻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과 불안이 뒤따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오늘도 깨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가끔 법문을 부탁하는 곳이 있어요. 가기 싫지만 거절 못하고 갈 때도 부처님이 여기에 왜 불렀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몇 일 지나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발생적인 법(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시봉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자연스런 법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없애기 전까지는 부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살고 죽는 것을 부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스님께서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후 일본 불교인과 교류가 많습니다. 일본문화 개방 이후 영화 연극 등의 유입이 많습니다. 우려했던 저질문화의 유입보다는 고급한 문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스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문화의 바탕은 불교입니다. 기독교신자건 불교신자건 일본인의 기본자세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 말 '아리가도(有難)'는 감사, 사례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행위로는 성불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성불하게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겼으니 고마울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리가드'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온 말이지요.

일본인의 생활과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아리가도'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질의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일본인이 추구하는 것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것이 모두 좋다, 모두 싫다, 그러면 안되고 우리들이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하겠지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옛 어른들의 가르침과 삶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의 시대에 옛것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요즘 사회를 지식사회, 정보사회라고 부르는데,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멀리서 왔다가도 하룻밤 묵어가는 일이 드물어요. 바쁘니까요. 현기증을 느낄 정도예요.

나는 정보사회의 본질을 도구가 발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것은 도구의 사용에 있다고 합니다.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지 정신은 아닙니다. 정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나고 죽고, 그리운 사람과 헤어지니 고통스럽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싫은 것이 당연하듯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를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더우면 땀으로 열을 식힙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 몸뚱이가 다른 무엇으로 바뀝니까?

정보사회이면서 동시에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사회는 앎의 문제인데, 지식과 지혜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들의 가르침 혹은 고전(古典)은 도구적인 수준이 아니고 삶의 근본적인 성찰이 담겨 있어요. 정보사회는 삶의 도구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지 않거나, 고전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는 정보는 우리들을 빠름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정보사회가 도구의 발달로만 치닫지 않도록 인문적 교양과 지식의 중요성이 그 이상으로 커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정보사회, 지식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곳이 군부대가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스님께서는 군법당에 자주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포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군포교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해 전에 목사 한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교회에 안 가고 이곳에 온다기에 왔다는 거예요. 라면값 하라며 2만원을 주고 가더군요. 그 병사는 이곳에 나오다 제대했는데, 교회보다 절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바른 종교는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목사 아버지도 수긍했다고 하더군요.

사찰 주변에 군부대가 많다보니 군포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30여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면 군부대를 돌아다녔어요. 요즘은 장병들이 이곳에 옵니다. 30~40명 정도가 오는데 법회 후 라면을 끓여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군포교는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군법당에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는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야지요. 신도들이 협조하고 참여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군포교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면 한결같이 말하지만, 돈도 보태고 시간도 내서 함께 해야겠지요. 장병들을 불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군생활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무술고수 대오스님 ㊤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나이에는 남보다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길 좋아한다. 나도 출가하기 전에는 그랬었다. 아니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난뒤에도 그같은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자주 다투기도 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처음에는 겪는 일인데 어떤 곳에 가서 살아도 항상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둘 있게 마련이다. 저 놈만 보지 않으면 수행을 잘 하고 살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 다른 장소로 옮겨 살아보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조금 지나면 또 미운 사람이 생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 마음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해소가 된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수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양평쪽에 있는 운길산 중턱에 수종사가 있다. 나는 출가하여 행자시절부터 스님이 되고 난 뒤에도 수종사에서 많이 살았다. 절이 너무 아름다워 내 마음을 끌었기 때문이다.

"폭력 앞에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려고 무술 배우는 것"

그 수종사 시절에 '대오'라는 스님이 있었다. 키가 훤출하고 몸이 날렵했는데 무술에 관심이 많고, 또 무술 고수로서 무술을 연마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았다. 나이는 나보다 서너 살 위였지만 우리는 서로 의기가 투합되어 아주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마을까지 내려가 쌀을 한 짐씩 지고 올라오곤 했다. 수종사는 마을에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부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운반해다 먹는 일이 큰 일이었다. 그것을 대오스님과 나는 신체단련으로 활용했다. 특히 그 해에는 대웅전을 짓는 큰 불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절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니 무엇보다 쌀이 많이 들어갔다. 말이 그렇지 무거운 쌀을 한짐씩 지고, 그것도 매일같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일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훈련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면 못할 일이었다. 그렇게 두 달 정도를 했을까. 다리에 철근이 하나 박힌 것 같이 튼튼하게 되었다. 짐을 지지 않고 그냥 산을 오르는 일은 몸이 가벼워서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산을 올라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힘이 넘쳐나서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을 정도의 힘(力發山兮 氣豈世兮)이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절밑 숲속에서 열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와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털을 태우는 냄새가 온 산중을 덮었다. 우리는 나는 듯이 달려내려가 불문곡직하고 그들이 가지고온 솥 단지며 술병이며 그릇들을 닥치는 대로 발로 걷어차고 부숴버렸다.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던 그들이 덤비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선 숫자가 많았다. 하지만 이쪽은 상당히 몸을 단련한 사람들이었다. 대오스님과 나는 각기 손에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싸웠다. 몇 사람이 머리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상처를 입었다. 싸움이 끝나고 보니까 대오스님과 나 역시 성한 곳이 없었다. 온 몸이 멍투성이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통쾌하게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다. "자식들 다시한번 절밑에 와서 개를 잡아먹어만 봐라. 그때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절에 와서 주지스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였다 대오스님이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어디 조용한 장소로 가자고 하자 대오스님은 자신의 무술을 믿었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갔다. 싸움이 벌어졌고 대오스님은 칼에 팔목과 옆구리 두 군데를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그들쪽은 더 비참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성한 사람이 없었다. 그나마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해 경찰이 달려왔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저들이 집단폭행이라 하여 가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지스님은 오히려 이쪽이 무술고단자이니 잘못이 많다고 해 화해를 해주고 처벌을 하지말라는 부탁까지 해서 사건은 간단하게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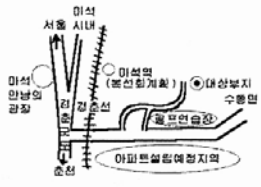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하지만 대오스님과 나는 주지스님 앞으로 불려가 "수행자동안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해야 했다. 특히 대오스님은 무술을 그만 두든지 아니면 다시는 힘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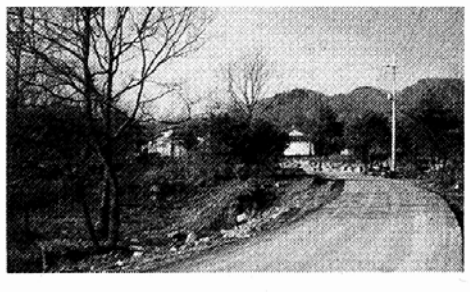
"자고로 무술이란 폭력이 아니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또 살리고자 하여 배우는 것이다. 폭력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내게 힘이 없어서 그것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앞으로 힘자랑이나 할 생각으로 무술을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귀에 다시는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누구를 때렸다고 하는 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다시는 이와같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남양주시 최고의 대가람터

▶ 소재지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면 적 : 2,000평 ~10,000평
▶ 가 액 : 상담후 결정
▶ 연락처 : 0346)511-0433
017)302-2550
017)391-1003



▶ 특 징
1. 46번 경춘국도에서 직선 1Km
2.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기반시설 완료
3. 송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마석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4. 정남향 대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다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훼손시킬수가 없었읍니다.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20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지장선원 개념4주년 기념
지장발심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약동의 계절 새봄을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여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두손 모읍니다.
지장보살의 은혜 속에 불초소납이 지장선원 개원 4주년기념으로 지장도량 큰스님을 초청하여 "지장발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7일간 매일 지장예찬기도와 지장법문, 무료천도재에 불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이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44년 4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장 지공손모음

卍입재 : 불기 2544년 4월 22일(토요일)오전 10시
卍회향 : 불기 2544년 4월 28일(금요일)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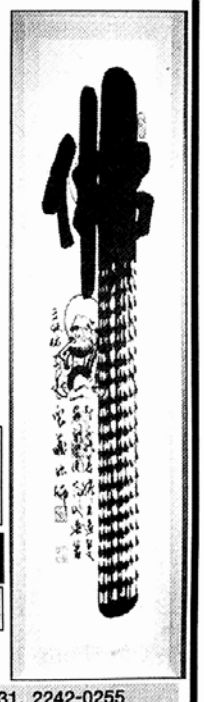
법문일정

입재날	4월 22일(토요일)	덕풍큰스님(부산녹야원) - 지장기도성취법
둘째날	4월 23일(일요일)	칠현큰스님(칠현심원사) - 지장행자의 수행생활
셋째날	4월 24일(월요일)	주광큰스님(신산영명사) - 지장보살의 사상과 원력
넷째날	4월 25일(화요일)	정목스님(춘천경포원) - 지장염불로 나와 세계를 밝힘
다섯째날	4월 26일(수요일)	보각큰스님(중앙승가대) - 지장신앙과 사회복지 실천
여섯째날	4월 27일(목요일)	빙진스님(영천반자마을) - 지장경 대의
회향날	4월 28일(금요일)	묘허큰스님(김해원명사) - 올바른 지장신앙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41-1 효목B/D 3층
053)744-0150(~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